SEOUL NATIONAL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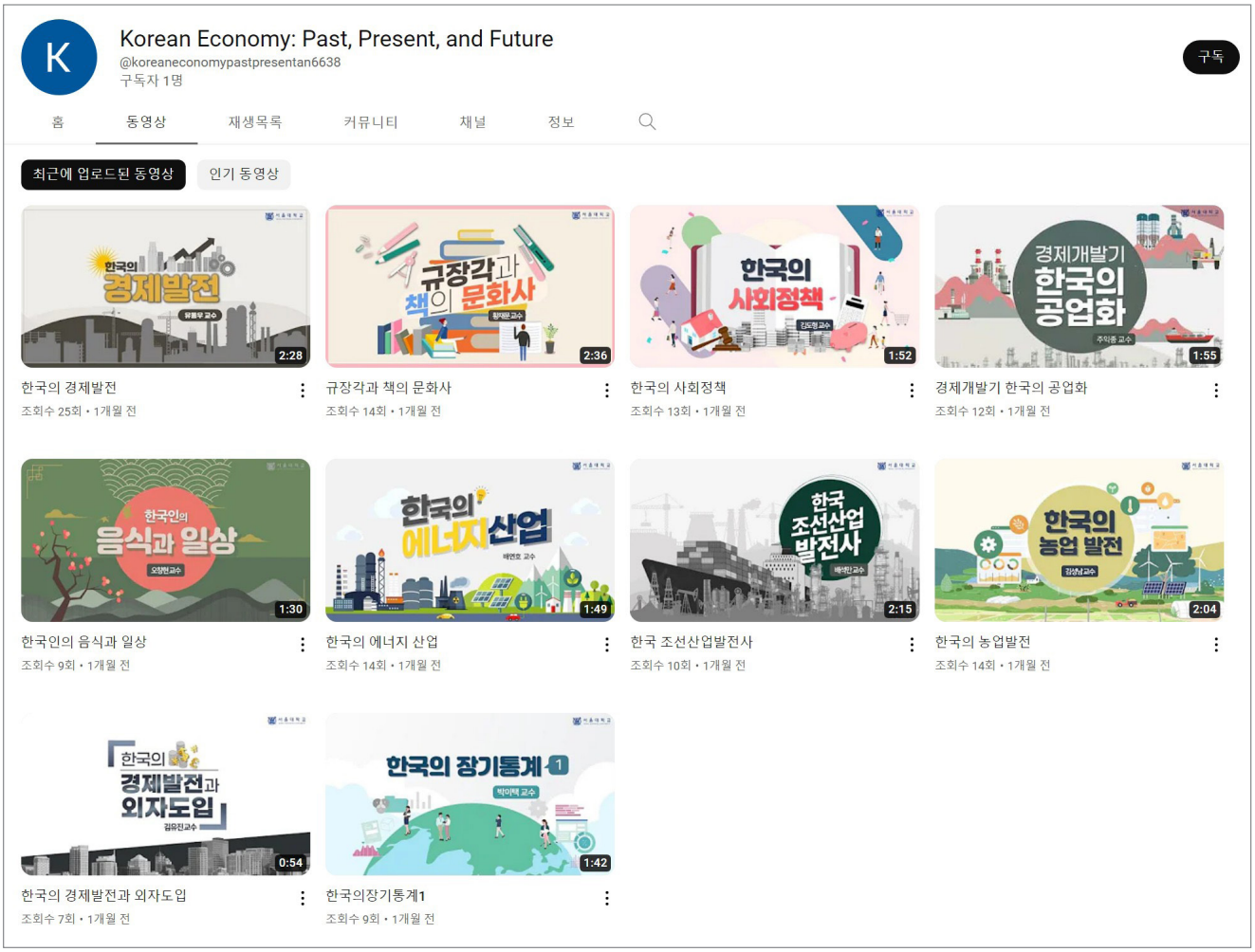
KEKA ON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No.05

Youtube 채널 개설

K-MOOC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인 동영상 강좌의 홍보를 위해 Youtube 채널을 개설하였다. 채널명은 "Korean Economy: Past, Present, and Future"이다. 1차년도에 제작한 10개 강좌를 소개하는 각 1-2분 분량의 영상 탑재를 완료하였다. 각 강좌의 동영상 링크는 KEK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NUON 강의 탑재

1차년도에 개발한 동영상 강좌 10과목을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SNUON에 모두 탑재하였다.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각 강좌를 수강하기 위한 링크는 KEK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K-MOOC 운영 사업 협약 체결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사업 협약 체결이 완료되었다(2022년 11월 7일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K-MOOC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본 협약의 대상은 KEKA에서 1차년도에 개발한 10개 강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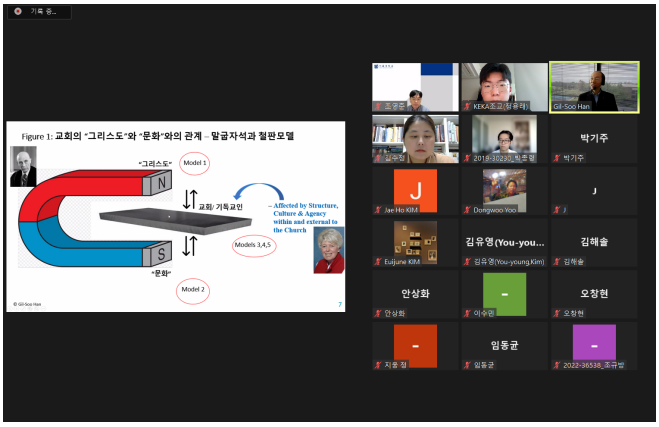
교수 동정

공동연구원인 임동균 교수가 한국사회역사학회에서 발간하는 『담론201』 제25권 3호에 「인지-동기 모델을 활용한 한국 경제발전 과정의 미시적 토대 분석」을 게재하였다(2022년 10월 31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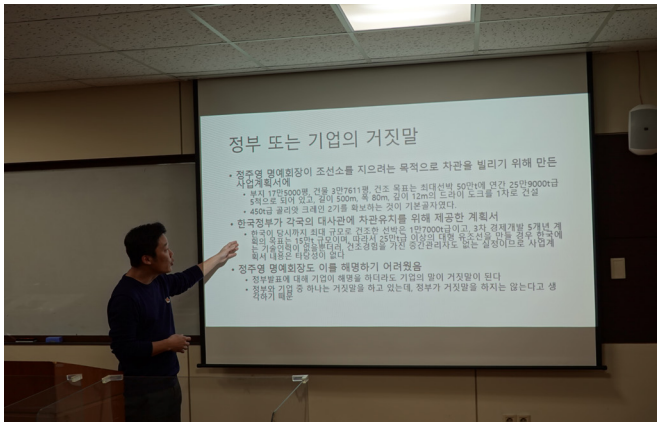
공동연구원인 박기주 교수가 한국경제 학술총서 제1권 『경제사회의 이해와 비판』을 출간하였다(도서출판 해남, 2022년 9월 19일자). 한국경제 학술총서는 KEKA의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보급하기 위해 속속 간행될 예정이다.

KEKA 연구 세미나

2022년 10월과 11월에 세 차례의 KEKA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일련의 세미나는 영문 연구저서의 북챕터를 구성하기 위한 초고를 발표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도 몇 차례 더 예정되어 있다. 제16회와 제17회 세미나는 Zoom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고, 제18회 세미나는 울산대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제16회 KEKA 연구 세미나 진행 광경 (2022. 10. 24.)



제18회 KEKA 연구 세미나 진행 광경 (2022. 11. 24.)

회차	날짜	주제	발표	토론
16	2022. 10. 24.	The Church That Lays Money, Power and Authority: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South Korean Churches	한길수(Monash Univ.)	김수정(국민대)
17	2022. 11. 07.	'재정능력 함정'으로부터의 탈출, 1876–1980	김재호(전남대)	옥동석(인천대)
18	2022. 11. 24.	설계를 기억하라: 현대중공업의 시작	유동우(울산대)	고선(중앙대), 조영준(서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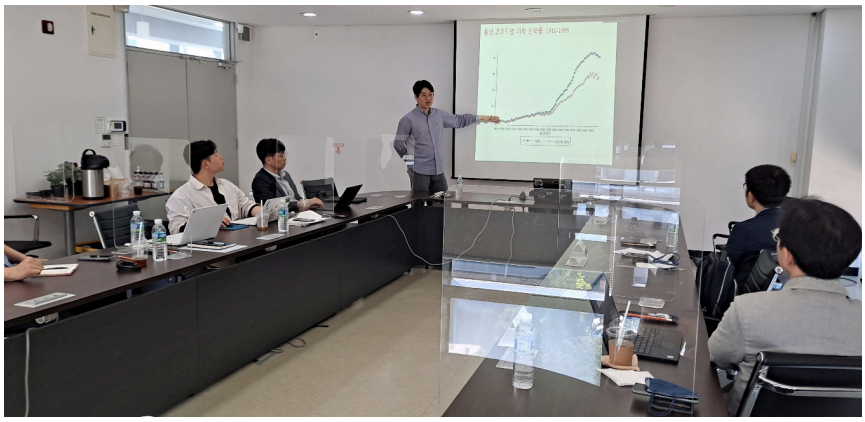
KEKA 교육 워크숍

2차년도 기획한 동영상 강좌 "한국 농지제도의 발전"의 개발 계획을 수정하여, "북한의 농업"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농협경제연구소에서 개최한 제30회 KEKA 교육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강의 계획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차	날짜	주제	발표
30	2022. 9. 30.	북한의 농업	김성남(농협경제연구소)

한국경제 시민강좌 개발 워크숍

KEKA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소책자를 제작하여 "한국경제 시민강좌"라는 시리즈로 간행할 예정이다. 초고의 집필이 완성된 저자는 워크숍에서 발표하여 원고를 개선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5회에 걸쳐 개최된 각 워크숍마다 2명의 외부 전문가를 토론자로 모셨다.



제28회 KEKA 워크숍 진행 광경
(2022. 9. 19.)

제33회 KEKA 워크숍 진행 광경
(2022. 11. 10.)

회차	날짜	주제	발표	토론
28	2022. 9. 19.	**대학교육과 한국경제**	김태훈(경희대)	김세익(고려대), 김준성(경희대)
29	2022. 9. 26.	**중화학공업화**	박기주(성신여대)	강두용(산업연구원), 박이택(서울대)
31	2022. 9. 30.	**북한경제**	홍제환(통일연구원)	홍순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종민(한국은행)
32	2022. 10. 13.	**경제개발계획**	최상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상철(성공회대), 정진아(건국대)
33	2022. 11. 10.	**저축과 자본형성**	이명휘(이화여대)	박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정은(순천대)

강의 촬영 - 스튜디오

2차년도 동영상 강좌의 촬영이 9–10월에도 계속되었다. 스튜디오는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관정미디어플렉스(KJ MediaPlex)에 위치한 창의미디어스페이스이다.

임채성 교수의 강의 촬영 광경 (창의미디어스페이스)
(2022. 9. 2.)

송경은 교수의 강의 촬영 광경 (창의미디어스페이스)
(2022. 10. 20.)

현장 견학 소감문

KEKA에서는 2022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울산을 방문하여 현대중공업과 SK에너지를 견학하였다. 학부생인 최재욱 학생이 기고한 소감문을 수록한다.

최 재 욱 (서울대 경제학부)

"빛의 원색의 개수를 왜 3개라고 말할까?" 1일차 견학 일정을 마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교수님이 소소한 퀴즈를 내셨다. 답은 빛의 색을 인지하는 인간의 시세포가 3개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결국 어떤 객관적인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조차 인간의 주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 교수님은 말씀하셨다.

어떠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데에도 인간의 주관은 큰 적이 된다. 이러한 확증편향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믿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닌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내가 이번 울산 기업체 견학에 참여했던 이유도 굴지의 산업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는 데서 받을 수 있는 신선한 자극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견학 1일차에는 현대중공업 울산공장을 방문했고, 2일차에는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를 방문했다.

견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을 꼽으라면, 첫째는 그들의 외형에서 느껴지는 압도감이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공장의 내부에는 거대한 작은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200만 평 가까이 되는 현대중공업 울산 공장의 경우 각 도크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선박 부품들이 즐비했고, 기술공들은 그 사이사이를 오토바이로 분주히 지나다녔다. 차가워 보이는 철제 부품들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용접 불꽃의 눈부신 색과 철판을 두드리는 소리에 두 눈과 귀는 한없이 즐거웠다.

이에 못지 않게 규모가 컸던 SK이노베이션 울산 Complex의 경우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큼직큼직한 볼거리는 없었지만 끝없이 늘어진 파이프라인의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관계자께서 공장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일렬로 이으면 지구에서 달까지 왕복할 수 있는 거리라고 설명해 주셨다. 코끝을 찌르는 기름 냄새는 파이프 곳곳에서 새어 나오는 흰색 수증기와 어우러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대중공업 공장의 모습이 마치 거대한 생명체 속 세포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는 것과 같았다면, SK이노베이션 Complex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혈관을 보는 것 같았다.

현대중공업 공장 외벽에 게시된 글귀, **"우리가 잘되는 것이 나라가 잘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되는 것이 우리가 잘될 수 있는 길이다."**

현장 견학 소감문

SK에너지의 울산 Complex Value Chain에 대한 해설 광경

두 번째는 기업체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정신을 내세우는 방식이었다. 현대중공업과 SK이노베이션 공장 모두 불모지를 개간하여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결국 각 기업을 일류 글로벌 기업의 반석에 올려놓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인지 그들은 기업의 성장 과정을 극적인 대조를 통해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두 기업 모두 공장이 들어서기 전 과거의 모습과 공장이 들어선 현재의 모습을 위성사진으로 비교해두기도 했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의 경우는 공장 부지에 위치했던 옛 기차 역사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이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공장시설들과 대비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었다.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공 스토리에서도 이러한 극적인 대조를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고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 그림을 통해 해외 차관을 유치하여 한국 조선업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에서 1위로 끌어올린 일화를 홍보물에 싣고 있었고, SK이노베이션은 과거에 고 최종현 회장의 중동에서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현대, 삼성을 제치고 유공을 인수하여 재계 서열 5위까지 올랐던 일화를 내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두 기업 간에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유형의 재료를 통해 선박을 제조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공장에서 생산물의 제조 과정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장 곳곳 눈에 잘 띄는 곳에 "우리가 잘 되는 것이 나라가 잘 되는 것이며,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글귀를 새겨 놓으며, 거대한 선박들이 결국 하나의 기업 정신 아래에서 생산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의 경우 생산물의 제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Value Chain 도식을 통해 이를 시각화하고 있었고, 생산품들의 품질이나 친환경성 등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플레어 스택(정유나 석유화학공장 등에서 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정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에 "꺼져서는 안되는 불꽃"이라는 상징성을 부여함으로써 생산물의 제조 과정을 간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사 강의를 수강하며 알게 되었던 글귀처럼 “역사는 과거의 기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식이며 그 지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실무진들을 직접 만나보며 기업체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그분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이 이번 견학을 통해 거둔 가장 큰 수확이었다. 궁극적으로 해외에서도 궁금해하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체들이 지금까지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산업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특별 기고
튀르키예의 한국학 교육

튀르케르 메흐멧 (펄어비스 리드)

이렇게 글을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으로서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겪어본 경험 및 개인적 포부를, 둘째로는 제 본국인 튀르키예에서의 한국학 관련 교육 현황, 그리고 셋째는 튀르키예 내에서 한국경제가 가지는 이미지 및 의미와 함께 한국경제에 관한 교육 실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 주제이므로, 제한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 개인적 견해임을 미리 밝히며, 그러한 배경이 되는 사적인 정보를 먼저 적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있는 튀르케르 메흐멧(Mehmet Türker)이라고 합니다. 제 국적은 튀르키예이며, 나이는 만으로 35세입니다. 현재는 한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게임 기업 중의 하나인 펄어비스에 다니고 있으며, 한국에서 만나고 혼인하게 된 러시아인 아내,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태어난 네 살 아들과 함께 회사가 위치하는 안양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게임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현지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지화 업무와 함께 3개 언어를 담당하는 리드(lead) 직급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와 함께 소속 팀의 교육 담당을 맡고 있으며, 저희 팀으로 새로 오는 신규 입사자들이 본인의 담당 업무에 익숙해질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기존 동료들이 필요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각종 업무 가이드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살다가 현재 한국에서 살게 된 경과가 그리 짧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접한 첫 번째 계기는 2006년 터키 에르지예스대학교(Erciyes Üniversitesi) 한국어문학과에 입학하고 나서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계기로는 대학교 졸업 직후에 다니기 시작한 한국 철도차량 생산 기업인 현대로템의 터키 현지 프로젝트에서 코디네이터 포지션으로 약 3년간 근무하게 된 것, 2013년에 입학하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 석사 과정을 졸업한 뒤 바로 진학하게 된, 동 전공의 박사 과정 또한 자기 삶의 방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졸업 논문을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박사 과정은 많은 경험 및 전문 지식을 접하게 되었던 의미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는 현재의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 가족생활을 갖추어 한국에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분들께서 꼭 한 번 정도 물어보는 "한국 문화나 사회에 대한 어려움이 없느냐?"라는 질문에는 이제 당당하게 "없다."고 대답할 수 있으며, 있다고 해도 한국인들이 평소에 느끼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가족과 함께 평안하고 의미가 담긴 삶을 사는 것이 앞으로의 제 목표입니다. 미래에 제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 역시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를 공부하면서 쌓인 지식 등을 바탕으로, 제 본국인 튀르키예를 위해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료의 작성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의 또 하나의 목표입니다.

가족과 함께

튀르키예의 현대로템 근무 시절

외국인 특별 기고

튀르키예의 한국학 교육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인지, 이제는 무엇이든 배우거나 따라가는 위치에서 벗어나, 필요할 때는 가르칠 줄 아는 수준에 어느 정도 이르렀을 거라는 생각도 가끔 조심스레 들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글의 주제인 튀르키예에서의 한국학의 현황에 대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량 역시 넉넉하지 않지만, 제 관점에서 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튀르키예에서 한국학의 현황에 대해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튀르키예에서의 '한국학' 교육은 '한국어' 교육의 한 부분이었으며, 한국어문학과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학과에서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 등을 언어 교육을 바탕으로 표면적으로만 가르쳐왔습니다. 그렇게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2010년만 해도 한국학만을 전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진이 존재하지 않았고, 한국학이라는 표현조차 생소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문학, 역사 등을 전공하는 한국인 초청 교수님들이 계시긴 했지만, 강의의 주된 내용은 늘 언어 교육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 역시 한국학이라는 표현을 학과 교수님들에게 몇 번 말로만 들어봤을 뿐, 실제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국학대학원에 지원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한 예로, 7–8년 전까지는 한국학이라는 단어를 튀르키예어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적절한 단어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만나게 된 에르지예스대학교 교수님들과 이야기하던 중, 현재의 한국학이라는 단어의 튀르키예어인 "Kore Çalışmaları"를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때까지의 한국학 교육이 언어 교육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었지, 한국학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전 세계에서 불기 시작한 K–문화라는 한국 문화 열풍에 힘입어 한국학에 관한 관심도 커지면서 튀르키예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과에서부터 한국학이라는 표현을 더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역사, 사회 등을 전공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기면서, 몇 년 전부터는 학과 단위는 아니더라도 콜로키움 정도의 규모로 한국학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까지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으로는 유라시아 한국학 연구소(ERAKAM: Erciyes Avrasya Kore Araştırmaları Uygulama ve Araştırma Merkezi)가 매년 한국학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소 같은 경우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 교육이 주목적인 에르지예스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진의 주도하에서 설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응용 연구소(APAM: Asya-Pasifik Çalışmaları Uygulama ve Araştırma Merkezi)에서도 한국학에 관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학 연구 등에 있어 앙카라대학교(Ankara Üniversitesi) 한국어문학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발간한 대표적인 논문집으로서, 2019년 및 2021년의 두 차례에 걸쳐 발간된 튀르키예에서의 한국학 연구논문집을 살펴보면 앙카라 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진의 주도로 논문집이 준비 및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국학에 관한 교육이 언어 교육 위주나 연구 활동에만 그치지 않은 전문적인 교육 수준을 달성해가고 있고, 향후에는 한국학 학과 개설까지 고려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현황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 흐름 속에서 언급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첫째는 아마도 튀르키예어로 출판된 첫 한국 역사책 중 하나인 앤드류 남(Andrew C. Nahm)의 『한국 역사와 문화(Introduction to Korean History and Culture)』에 대한 번역본입니다. 알리 르자 발라(Ali Rıza Balaman) 교수님이 터키어로 번역한 이 책은 1998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니던 때에는 이 책을 부교재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한국 역사를 터키어로 접하는 데 첫걸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한국학을 알리기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주도한 노력입니다. 제가 실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부하면서 한국학을 터키에 알리기 위한 여러 노력을 보게 되었으며, 이는 터키에서 최근 들어 전개되기 시작한 한국학 교육에도 크게 이바지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인 특별 기고
튀르키예의 한국학 교육

한국학 교육의 현황은 위와 요약할 수 있는데, 다른 주제로 한국경제와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 제 개인적 평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일단 터키에서 한국경제라고 하면 개념적인 면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이 빠른 기간 내 이뤄낸 경제 성장이 떠오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대해 배우기 전에 한국에 대해 들어본 몇몇 이야기는 주로 기적 같은 경제 성장, 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이뤄낸 국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시기가 되면 터키가 한국형 경제 성장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 · 야당 인사들을 볼 수 있었고, TV 프로그램에 연출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터키가 어떻게 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한국의 경제 기적을 예로 삼아 대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튀르키예어로 한국경제를 검색해 보면 한강의 기적, 한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느냐, 한국형 경제 성장 등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글들을 접할 수 있고 논문 검색 플랫폼 등에서 검색했을 때도 한국 경제 성장과 관련 다양한 연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제라고 하면 경제 성장이 가장 큰 관심사이며, 일반인부터 정치인까지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서 터키 경제를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한국경제를 전문적인 수준에서 공부하여 학계에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없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꿈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현재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면서도 다시 한 번 그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한국경제 성장에 대한 관심이 튀르키예에서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이끌어갈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튀르키예 정부에서 고등학교 외국어 교과과정에 한국어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고등학생들도 한국어를 선택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한류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많아질 수도 있으며,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국학 및 한국경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의 펄어비스 신사옥 앞에서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발행 조영준 **편집** 박석훈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01동 513호
T. 02-880-2133 **E.** keka@snu.ac.kr **H.** keka.snu.ac.kr

Copyright 2021. SNU KEKA. All rights reserved.